

간접흡연

1.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담배연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들이 마시므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간접흡연이라 한다.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상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접흡연이 해롭다면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흡연자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 들이 마시는 담배연기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연기이고 하나는 타고 있는 담배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이다.

생담배연기는 담배속의 모든 독성물질, 발암물질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내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독성이 강하며 흡연자가 실내에서 담배연기의 독성을 측정해 보면 그 중 75%는 생담배연기에서 나온 것으로 니코틴은 3배, 타르는 3.5배 일산화탄소는 5배가 높다.

2. 간접흡연의 피해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가 더 높으며,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천식, 중이염 등의 발현율이 6배가 더 높다.

담배를 피우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은 4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가

지 사소한 질병의 발병률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염의 감염률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영아는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으며, 폐암발생률도 2배(부모 양쪽 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6배)나 높다고 하였다.

그 외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현율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에게서 6배나 높으며, 폐기능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피해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간접흡연과 자녀

1967년 미국의 덴버에서 가메론 박사는 1,000세대를 상대로 조사하여 양친 중의 한분이나 두분이 흡연을 하는 가정에서는 급성의 호흡질환, 이른바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는 자녀가 많았다고 보고했으며 1969년에는 흡연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병에 걸리는 율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는 공기오염에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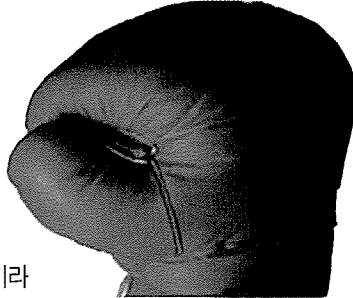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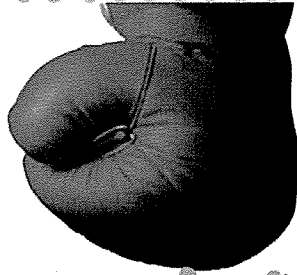
또 영국 그레이박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친 비흡연자 가정의 자녀가 생후 1년간에 폐염이나 기관지염에 걸리는 율이 1 이하 한다면 부모중 한쪽만 흡연한 가정은 1.46배, 양친이 다 흡연한 가정은 2.26배로 나타났다.

4. 어머니 흡연과 자녀의 폐 발육

UPI통신의 과학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스턴 소재 베이스스라엘 종합병원 연구진들이 5

년간에 걸친 임상연구를 한 결과 담배를 피우는 어머니를 가진 어린아이는 흡연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들보다 폐 발육이 느리다는 등 폐의 기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의 일원인 스코트 바이스 박사는 1,156명의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흡연여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흡연이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독이 된다는 여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생활하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훨씬 길음으로 아버지의 흡연보다 어머니의 흡연이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인 성인남자의 흡연율(약70%)은 세계 제 1위인 반면, 성인여자의 흡연율(약 5%미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한국인의 폐암사망률은 1996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남자 28.7명, 여자 10.0명이다(통계청,1997). 이러한 사망률은 그간 한국인의 흡연습관을 고려해 볼 때 약10년 뒤인 2005년에는 남자 65명, 여자 1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이한 것은 한국인 성인남자의 흡연율(약 70%)은 세계 제 1위인 반면, 성인여자의 흡연율(약 5%미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남성과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남편의 흡연에 간접흡연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설을 내놓을 수 있다.

전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공단 자료 중에서 40세이상 부부(265,052쌍)를 대상으로 하여 1994년 남편의 흡연력을 조사하고, 1995-1997년 3년간 부인의 폐암 입원 경력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112명의 부인에게서 폐암발생률이 13.8%로 나타났다.

흡연하지 않는 남편의 부인과 비교해서, 흡연하는 남편의 부인은 폐암으로 입원할 확률이 86% 높았으며 특히 흡연하는 남편과 30년 이상 같이 지낸 부인의 경우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2.7배(170%)나 높았다. 이러한 위험도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 음주여부와는 관계없이 통계학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996년 한국인 여성 2,227명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남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약 800명의 여성폐암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이달의 건강길라잡이)

5. 부모흡연과 자녀의 복통

영국 메디칼 저널지에 실린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젖을 떤 250명의 어린이 가운데 양친모두 흡연자인 경우 복통을 일으킨 아이가 32%였는데 비해 양친이 비흡연자인 경우는 7%인 반면, 흡연자인 경우에는 61%나 됐다.

6. 부모흡연과 자녀의 성장저해

센트 토마스 병원의 연구팀이 Nation Study of Health and Growth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접흡연에 의한 어린이의 신장 평균이 약 1cm 낮다고 하였으며 가정내의 흡연자의 인원수와 어린이의 신장과의 사이에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7. 간접흡연과 폐암